코스피 2000시대? '개미' 체감지수는 1800

개인 투자 몰리는 코스닥지수 1년째 제자리 걸음

상위 100개 수익률은 32%…기관-개인간 괴리감↑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지만 개인들의 체감 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수가 올해 초보다 20% 가까이 올랐지만 개인들이 사들인 종목의 수익률은 지수 상승률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수는 2,000이라는데 체감지수는 1,800'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743개(보통주 기준·신규상장·상장폐지종목 제외)의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가운데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낸 종목은 257개에 불과하다. 10개 종목당 6.5개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급등하면서 실제 지수와 개인들이 실제 느끼는 지수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의 수익률은 32.61%로 지수보다 1.5배 이상 높다.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지수가 1년 새 제자리걸음인 것도 이러한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개인이 올 한해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률은 각각 49.86%와 44.59%에 달하는 반면 개인은 -4.83%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인이 올해 가장 많이 산 POSCO가 23.06% 급락한 것을 비롯해 한국전력(순매수 5위, -14.08%), 외환은행(8위, -20%), 대한전선(11위, -54.78%), LG생명과학(17위, -22.42%), NHN(20위, -58%) 등 매수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코스닥지수가 제자리걸음이라고 하지만 기관과 개인은 각각 59.87%와 22.74%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나 개인 수익률은 코스닥에서도 마이너스(-10.69%)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은 "지수가 대형주 중심, 그중에서도 핵심 소수 종목 위주로 오르면서 기관.외국인 대 개인의 괴리율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섣불리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관과 외국인 주도로 일부 업종 및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개인이 뒤늦게 편승해 성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코스피 2000이 넘었다는데…

14일 코스피 지수가 3년여 만에 2000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허탈감이 크다. 개인들이 선호하는 개별종목들은 주가가 제자리이거나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다.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 유진투자증권 객장에서 고객들이 시세판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른 주가에 개인·기업 금융자산 100兆 증가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개인과 기업의 금융자산이 100조원가량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이 9월 말 현재 2102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56조8000억원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부문은 소규모 개인기업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를 가리킨다. 개인 금융자산 증가액은 지난해 3분기의 81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개인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은 주가가 오른 데다 예금과 보험·연금 가입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개인부문 주식은 373조7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1조70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보유 주식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덕이다.

같은 기간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19조2000억원 늘어 9월 말 잔액은 896조9000억원이 됐다. 증가 폭은 2008년 2분기의 22조9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증가해 순금융자산(자산-부채)은 37조6000억원 늘어난 1천205조4000억원이 됐다.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배율은 2.34배로 2007년 3분기의 2.35배 이후 가장 높았다.

비금융 법인기업도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이 1030조4000억원에서 1천75조5000억원으로 약 45조원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9조7000억원 늘어난 1293조원이 됐다.

금융법인과 정부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은 1경232조1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2.3% 증가했다.

3분기 중 개인부문은 금융회사 차입 등으로 자금 조달을 4조3000억원 늘렸지만 예금이나 주식투자 등 자금 운용은 11조2000억원 줄였다. /연합뉴스

공동출하회 육성사업

전남농협 전국 1위

전남농협이 산지유통 혁신을 위해 연합사업과 공선출하회(공동선별출하회) 육성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14일 전남농협은 "'산지유통혁신 112운동'의 핵심사업인 연합사업과 공선출하회 육성사업이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산지유통혁신 112운동'은 산지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를 1조합 1품목 이상 2년 내 육성하고, 마케팅 조직으로 1시군 1연합사업단을 2년 내 육성하는 전남농협의 경제사업추진 전략이다.

전남농협에 따르면 올해 공동선별출하회는 121개 조합에서 198개 공선회를 육성, 1000억원의 공동계산실적을 올려 지난해 847억원보다 150억원이 증가했다.

연합사업도 전남지역본부 참다래 연합사업을 비롯한 18개 사업단에서 630억원의 실적을 올려 지난해(430억원)보다 200억원이 늘었다.

전남농협 김용복 본부장은 "연합사업과 공선출하회가 전남지역 산지유통의 핵심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韓銀광주전남본부-전남대

내일 오후 '지역경제포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대학본부 3층 세미나실에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지역경제포럼'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가 지역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 분기마다 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남대 정봉현 교수가 '호남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방향'을 주제로, 호남대 김상호 교수가 '여수엑스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소폭 상승

11월 0.22%…신규 부도업체 8곳

11월 중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0.22%로 전달(0.16%)보다 소폭 상승했다.

광주지역(0.26%→0.15%)은 0.02%포인트가, 전남(0.ㅎ07%→0.15%)도 0.08%포인트 상승했다.

부도 금액(사업체 기준, 개인 제외)은 62억8000만원으로 전달보다 18억9000만원 증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신규 부도업체 수는 8개로 전달과 같으며 업종별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각각 2개 증가한 반면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3개와 1개씩 감소했다.

신설법인 수는 282개로 전달(284개)보다 2개가 줄었고,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은 56.4배로 전달(35.5배)보다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길 잃은 부동자금 600조원 어디로

정기예금 50조원 만기까지…금융계 촉각

단기상품 머물며 새 수익원 탐색전 예고

은행 정기예금 약 50조원의 만기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집중된다.

여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5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돼 600조원을 웃도는 자금의 움직임을 두고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자금 규모는 집계 방식을 달리하면 650조원을 넘는 상황이다.

문제는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든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스피지수가 14일 개장 초 2,000대를 돌파할 정도로 이미 높이 오른 가운데 은행 예금금리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전문가들은 펀드 환매자금과 만기가 돌아온 예금이 당분간 금융시장의 단기 상품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점쳤다.

◇정기예금 50조원 줄줄이 만기=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정기예금은 50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정기예금 잔액의 10분의 1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만기 도래 추정액 42조8000억원보다 약 18% 증가한 액수다. 올해 말까지 17조5000억원, 내년부터 3개월 동안 33조원의 예금 만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

이러한 까닭은 은행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고금리를 얹어주는 특판 예금을 대거 유치한 데서 비롯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이 3조원에 이르며, 내년 1분기에는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정기예금이 4분기에 2조5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왔고, 내년 1분기에는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5조6000억원, 내년 1월 중 8조2000억원의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온다. 우리은행도 내년 1월 만기 도래액이 약 8조원(적금 포함)에 이른다.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4조원의 정기예금 만기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단기 예금과 합쳐져 정기예금이 많이 늘었으며, 당시 늘어난 예금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이들 만기 도래분을 다시 유치하는 데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식이다.

◇갈곳 못찾은 부동자금 550조~650조원= 그렇다고 당장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자니 '코스피지수 2,000 시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수가 오르면서 앞다퉈 돈을 회수하고 있다.

월별 국내 주식형 펀드 잔고는 지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지난 5월 71조8000억원에 달하던 것이 지난달에는 63조원으로 줄었다. 투자예탁금마저 지난달 말 15조원에서 지난 9일 현재 14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면서 시중에는 갈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넘치는 형국이다.

현금, 요구불 및 수시입출식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 예금증서(CD), 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부동자금은 지난 10월 말 현재 556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분간 '눈치보기' 증권사 "곧 증시로" =전문가들은 이들 자금의 향방에 대해 당분간 단기 예금이나 대기성 금융상품에 머무를 것으로 점쳤다. 일부 증권사는 "불안감이 사라지면 곧 증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호언장담도 했다.

동부증권 박유나 연구원은 "은행 정기예금의 성격상 만기가 돌아온다고 곧바로 은행을 떠나 증시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금리를 감수하고 상당 부분 은행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잠재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CMA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중간영역'에 머무르면서 지수의 안정성을 타진하는 것 같다"며 "'반 토막 펀드'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져야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익률 측면에서 압도적인 증시로 곧 유입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